

다산의 전원관 연구 동향

황민선(전남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문학적 접근: 문헌읽기와 시를 통한 이상 |
| 2. 용어의 개념 정리: 자연, 전가, 전원 | 적 전원 분석 |
| 3. 조경학적 접근: 원림의 구성과 조영
방식 분석 | 5. 맺음말 |

1. 머리말

茶山 丁若鏞(1762~1836)은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실학자였다. 그 중 조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원림 조영과 植樹에 관련한 다양한 저술과 문학작품을 남겼고, 다양한 원림 조영으로 현실화 하였다. 이런 다산의 원림 조영에 대한 관심은 그의 원림 관련 저술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竹欄花木記』를 보면 서울에 살았던 시절에 집 뜰에 분재원을 조성하여 작은 정원을 경영했었고, 『書香墨味閣記』나, 『谷山政堂新建記』를 보면, 좌천되었을 시기에도 부임지에 작고 소박한 원림을 가꾸며 심신을 달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산의 원림 조영과 조영을 위한 화목에 대한 그의 관심은 다양한 저술과 시 작품을 통해 드러났다.

사실 조선 시대 선비 문화에서 원림 조영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어서, 수많

은 인사들은 자신의 기거처에 園林이나, 樓亭의 형태로 이상적인 자신만의 공간을 꾸렸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사들의 그러한 공간에 방문하면서 그 공간을 함께 향유하면서 수많은 저술과 시작품을 남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그들의 원림이나 누정이 정계에 실패한 도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인 세속을 벗어난 隱者로서 삶의 공간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런 원림은 도학자의 차선인 은자가 田園 안에 꾸린 자신만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 宦路에 실패한 유학자가 차선으로 선택해야 하는 전원의 삶에서 원림 조영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전원의 집약이며, 따라서 원림은 그들의 전원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다산이 살았던 18, 19세기는 경화사족이 문화와 권력을 독점하며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이상적 전원 공간을 꾸리는 욕망이 교외가 아닌, 도시에 집중되어¹⁾ 화훼와 정원 조영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다산의 원림 조영과 그에 투영된 전원관은 선대들이 전원에 원림이나 누정을 조영하였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존재 할 것이다. 또한 다산은 좌천과 기나긴 유배를 통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전원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시형 원림 조영이 유행하던 시기, 타의적 전원생활로 인해 실제 전원에서 원림을 조영하게 된 다산만의 독특한 전원관이 존재하리라 여겨진다.

이런 다산의 전원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 다산의 다양한 저술 속에 언급된 원림 조영에 대한 철학과 원림과 전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실제로 실현된 다산의 원림 공간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산은 방대한 다산의 저술만큼이나 수많은 연구자들의 업적이 집적되어 있다. 그간 다산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다산을 이해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다산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임과 동시에 다산학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다산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일 또한 다산을 이해하는데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산의 전원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산의 전원관이라는 키워드로 다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류해 보았다.

1) 안대회, 『18,19세기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호, 진단학회, 2004, 113면.

전원관은 원림이나 누정, 그리고 집안의 작은 정원으로도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이나 저술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원관이라는 키워드로 선행 연구를 분류해 본 결과 다산의 전원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논문들은 조경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가 되었다. 이는 다산의 전원관은 조경학, 문학, 철학 등과 같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다산의 전원관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크게 조경학적인 접근, 문학적 접근 두 가지로 살피고 문학적 접근은 문헌읽기와 전원시 분석 두 방향으로 나누어 전원관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 다산의 전원관이 어떤 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용어의 개념 정리 : 자연, 전가, 전원

선행 연구들을 분류함에 앞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전원이란 용어를 선택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다산의 전원관에 대해 自然, 田園, 田家, 園林...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自然, 田園, 田家, 園林... 등의 용어는 세속이나 인간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제 작품이나 저술에서는 대상과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²⁾ 그러나 각 용어가 가지는 범위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 시가나 시 연구에서 자연에서의 삶 안에서 자연물이나 감흥을 읊은 시들을 정의하는 명칭에 따라 위 용어들의 범주가 달라진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들을 자연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과 작자(또는 화자)의 시각의 차이에 따라 山水詩, 田園詩, 田家詩로 나뉜다. 즉 자연이라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이를 형상화하는 작자의 시각과 이에 따라 그 시각이 시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 자연이라는 범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 田園詩의 시초인 陶潛도 山水詩의 시초인 謝靈運도 본인의 시 장르와 대상의 범주를 田園과 山水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후대 인사들이 그들의 작법과 시에 형상화된 표현에 따라 田園과 山水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은 같되 대상을 바라보는 범위에 따라 명명

2) 윤재환, 『田家詩의 形象技法考』, 『연세어문학』 3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310면.

된 용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자연은 현대적 의미에서는 문명과 반대인 원시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인간의 생활, 즉 세속에서 탈피한 유학자가修身할 수 있는 관념적 의미인江湖와 원시가 혼재된 더 큰 범주가 된다. 특히 선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학자적 수양을 동반한 삶의 영위였던 조선시대에서 대상인 자연은 관념적 의미가 더 크게 작용되어 작품에 드러난다.

전원과 전가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거칠게 살펴본다면 전원의 경우는 원시와 관념의 개념이 비교적 희석된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가깝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공간 중 자연에서 농민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의 공간을 주로 명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원시, 전원문학 이라고 불리는 범주는 전원의 풍경 뿐 아니라 전원에서의 실제 농민들의 생활까지 읊는 작품들을 말한다.³⁾ 전가는 여기에서 더 현실적 공간으로 집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전원의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 공간을 전가의 개념으로 본다.⁴⁾ 즉 전원이 자연에서 인간의 삶이 관계된 광의의 개념이라면 전가는 거기에서 인간이 실제로 가꾸고 일구는 현실적 공간에 집중하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⁵⁾. 자연 안에서 인간이 실제로 가꾸고 일구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원림과 전가는 동일하다. 하지만 전가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현장으로써 가꾸고 일궈야하는 공간이라면 원림은 인간이 인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림 그 조영의 특성상 현실적 삶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 구현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림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라기보다, 현실적 삶의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의도적인 장치에 가깝다. 즉 전가가 먹고 살기 위한 현실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원림은 거기에서 현실을 이상향으로 꾸며줄 수 있는 장치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용어 모두 세속에서 벗어난 교외에서 살아내는 삶의 공간이라는 대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작품이나 저술에서는 크게 차

3) 원종례, 『陶淵明과 王·孟의 田園詩 연구』, 『논문집』 1,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995, 11면.

4) 윤재환, 『田家詩의 形象技法考』, 『연세어문학』 3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311면.

5) 남재철,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東方漢文學』 33집, 동방어문학회, 2007, 108~109면.

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범주의 차이가 있어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위의 네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가와 원림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삶과 이상적 공간을 넓게 포괄하면서도 인간의 삶과 밀접되어 있는 자연공간이라는 의미에 더 집중된 용어인 전원을 키워드로 삼았다. 적극적으로 이상적 공간인 원림 조영을 하면서도 다양한 저술에서 현실적인 전가의 생활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인 다산의 원림 조영과 관련 저술을 설명하는데 전원이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3. 조경학적 접근 : 원림의 구성과 조영 방식 분석

앞서 말했듯이 전원관은 이상향의 모형인 원림 조영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 또한 다산의 경우에는 비록 원형을 보존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원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경학 분야의 논문이 많은 편이다. 조경학에서는 다산이 조영했던 원림의 공간 구성 방식을 통해 조영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산의 원림관, 자연관 등을 보거나 다산의 다양한 저작물에 보이는 花卉와 草木들을 통해 당시 조영 방식과 구성을 재현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였다.

특히 먼저 원림관 혹은 자연관을 고찰한 경우의 논문들이 있다.⁶⁾ 특히할만한 점은 이런 유형의 논문들은 학위논문인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학위논문의 특성상 초당원의 원림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자연관이나 원림관에 기반하여 공간구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다산초당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초당원을 구성하는 菜圃나, 茶竈와 같은 공간 구성을 문헌조사에서 보이는 다산의 실용적 철학과 결부하여 실천적 수기의 공간, 혹은 실용적 공간 재현으로 보는 논문들이 다수이다.

다산의 자연관, 원림관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고자하려는 시도는 문헌적 접근이나 문학적 접근의 연구에서보다 조경학적 접근에

6) 이런 유형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박희성,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정찬민, 「다산의 원림관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유리, 「자연관이 별서건축 공간에 미치는 영향 : 소쇄원, 다산초당, 보길도원림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최인에, 「다산 정약용의 자연관이 원림 조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서 많이 보인다. 이는 아마도 원림을 연구하는데 있어 원림 조영자가 바라는 자연이나 원림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조영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재 원림의 공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문헌이나 문학적 접근의 연구에서만 다양한 다산의 원림 관련 저술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분석까지는 하지 않지만 문헌과 문학 작품을 실재하는 원림과 연결하여 공간구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조경학적 접근에서 다산초당원의 연구에는 정동오의 논문을 빼놓을 수는 없다. 먼저 강진지역의 조선시대 원림인 白蓮堂, 農產別業, 茶山草堂을 고찰한 「강진지방에 있어서의 조선시대의 원림」이 있다⁷⁾. 이 논문은 대상 원림을 조경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각 원림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을 중요한 문헌자료로 삼아서, 현재는 파악하기 불가능한 植樹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초당원 생활시기에 다산이 남긴 園林詩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이후 「정약용의 원림생활연구 - 丁茶山全書를 중심으로」⁸⁾에서는 『與猶堂全書』를 중심으로 다산의 생애에 원림과 관계된 지점을 살펴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누정원림과 조경식물을 분별하여 분석하였고, 「한국 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다산초당과 「조석루기(朝夕樓記)」를 중심으로」⁹⁾에서는 강진 유배시절 다산이 자주 드나들며 감상하였던 원림인 尹皆甫의 농산별업에 대해 다산이 남긴 누정기인 「朝夕樓記」를 근거로 분석하며 다산초당원과 비교하는 논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정동오의 연구는 다산초당원에 대한 조경학적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정동오와 같이 다산의 다양한 저술을 근거로 다산의 원림 조영 철학의 근거를 살피려고 한 논문은 다산의 자연관을 우주론적 자연관이라고 정의하고, 회화, 시, 산수기행에 관련한 저술과 같은 문예활동에 드러난 자연관과 함께 다산초당원의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한 박희성, 조정송의 논문이 있다.¹⁰⁾

7) 정동오, 「강진지방에 있어서의 조선시대의 원림」, 『호남문화연구』 12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1982.

8) ———, 「정약용의 원림생활연구 - 丁茶山全書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집, 한국전통조경학회, 1986.

9) ———, 「한국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다산초당과 「조석루기(朝夕樓記)」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4권, 연세대학교 강진실학연구원, 2012.

10) 박희성·조정송,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25권, 한국조경

이외에 조선시대의 대표적 차 문화 공간으로 孤山 尹善道の 芙蓉洞園林, 다산의 茶山草堂園, 草衣 意恂의 一枝菴을 선정하여 차 문화를 중심으로 공간 구성을 분석하거나¹¹⁾, 보길동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으로 놓고 각 별서정원에 보이는 선비문화와 이런 문화가 공간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논문¹²⁾ 등이 있다.

이렇게 조경학적 접근의 연구들에는 조영자의 자연이나 원림에 대한 시각을 통해 원림 공간 구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다산초당원의 공간구성은 茶籠와 藥泉을 중심으로 한 다도를 위한 공간, 菜圃로 구현된 경작을 위한 공간, 蓮池와 花階, 丁石으로 구현된 意境 구현을 위한 공간 등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그리고 이런 공간구성은 다산의 저술 등을 통해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다산의 자연관이나 원림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연구가 다수이다. 그러나 다산 초당원에서의 구체적으로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롭게 발굴된 문헌자료들을 활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4. 문학적 접근: 문헌읽기와 시를 통한 이상적 전원 분석

4.1. 문헌읽기를 통해서 본 이상적 전원

다산은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우리는 그 저작에서 다산의 사상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전원예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본격적으로 다산의 전원관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논문들은 많지는 않다. 주로 문학작품을 분석하거나, 철학적 저작물들을 분석하기

학회, 1997.

11) 현영조, 『朝鮮時代 代表的 知識人의 茶文化空間 研究 - 고산, 다산, 초의를 사례로』, 『한국차학회지』 7권, 한국차학회, 2001.

12) 양병이·박은영·박위,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동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권, 한국전통조경학회, 2003.

13) 박희성·조정승, 위의 논문, 139~140면.

위해 기타 편지, 서발, 잡저류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공간의 이상향, 혹은 이상적 전원관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저작물을 인용한 논문들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 이 장에서 그런 유형의 논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 읽기에 집중하여 이상적 전원관, 혹은 주거관을 파악하고자 하는 논문들은 조경학 논문들과는 달리 실제 존재하는 원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산이 이런 공간을 직접 언급한 저작물들을 통해 그 실재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산의 이상향, 혹은 이상적 전원관을 파악하는데 더 집중하고 이런 이상적 전원관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안대회와 심경호는 2000년대 초반부터 18, 19세기의 조선의 도시문화 형성과 이를 향유했던 선비문화의 변이 양상을 그들의 다양한 저작물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¹⁴⁾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문화에 집중했고, 주거문화에서도 가장 장식성이 강한 화원꾸미기에 집중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상적인 주거공간이란 그들이 환로를 실제로 욕망하던 욕망하지 않던 표면적으로는 번잡한 속세를 떠나 교외, 즉 전원에서 심신을 수양하는 한가로운 삶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 전원은 원림이나 누정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상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사대부의 이상인 전원의 호젓한 삶은 현실성을 잃고 도회지와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런 타협은 이상적 전원이 도시의 작은 화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마저도 이루지 못한 선비들에게는 상상 속의 정원의 기록인 意園記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¹⁵⁾ 즉 전원 안에 이상적 공간인 원림이나 누정을 만들어 기거하던 것이 조선 후기가 들어서자 주거 공간 안에 이상적 전원의 모형을 정원이나 화원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이다.

위의 두 논문은 花園記, 의원기 등과 같은 문헌 읽기를 통해 조선 후기 사대부가 꿈꿨던 이상적 주거공간과 그 주거 공간 안에 들어온 이상향인 전원의 모형, 즉 정원에 대한 변모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이런 변모의 흐름의 증거로 안에 다산의 의원기와 화원기 등을 당대의 인사들과 함께 살피고 있다.

이런 당대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모의 흐름에서 다산만의 독특한 특성

14) 심경호, 「화원에서 얻은 단상」,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2 : 안대회, 「18,19세기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호, 진단학회, 2004.

15) 안대회, 「18,19세기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호, 진단학회, 2004, 115면.

을 집어내 문헌읽기를 한 연구는 주로 정민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정민은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등과 같은 논문에서 명의 공안과 문학, 청의 고증학, 그리고 서화 등과 같은 다양한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상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18, 19세기 선비 문화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폈다.¹⁶⁾ 이렇게 조선 후기 선비문화의 변모 양상과 특징을 보는 논문 중에 특히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는 도시 안 모형의 형태로 들어와 버린 이상적 전원인 정원(또는 화원)을 구성하는데 필수 요소인 원예 취미의 유행현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여기서 정민은 자신의 주거 공간 안에 원림이나 정원을 조영하고, 이에 따라 원예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을 서책, 골동, 서화와 함께 생활 속 예술을 추구하는 당대의 문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玩物喪志라 하여 배척할 법한 이 정원 경영을 위한 화훼와 원예에 대한 벽을 정약용을 비롯한 李書九, 李德懋, 李鈺, 柳得恭 등과 같은 당대 문사들의 화원기나 의원기를 통해 분석하여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의 증대와 중국과 일본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도시 문화의 확산이 가져온 일종의 웰빙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런 원예문화를 통해 정원경영의 경향을 본 정민의 시각은 이후 유배생활동안 초당원을 경영하며 이상적 전원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초당원에서 다산의 생활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산초당 경영과 공간 구성」¹⁷⁾에서는 초당원과 관련된 시와 「茶山先生居跡圖」를 통해 다산초당의 시기에 따른 경영 모습과 공간 구성을 살폈고, 「다산의 평생구학론 - 이성화에게 준 3종 친필첩을 중심으로」¹⁸⁾에서는 「여유당전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送李聖華將歸序」, 「菴川四時詞」, 「與聖華詩」를 소개하여 이들 작품에서 드러난 초당원을 경영하며 생활하는 다산의 모습을 통해 平生丘壑의 뜻을

16)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이외에도 이렇게 18, 19세기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비 문화를 살핀 정민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癖과 癡 추구의 경향」, 『18세기연구』 5호, 한국18세기학회, 2001 :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연구』 4호, 한국18세기학회, 2002 :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완물 취미와 지적 경향」, 『고전문학연구』 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집, 한국한문학회, 2005.

17) 정민, 「다산초당 경영과 공간 구성」, 『문헌과 해석』 39호, 문헌과해석사, 2007.

18) ———, 「다산의 평생구학론 - 이성화에게 준 3종 친필첩을 중심으로」, 『다산학』, 다산학술문화재단, 2009.

살폈다. 두 논문 다 다산초당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헌 읽기를 통해 다산의 전원생활에 대한 고찰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논문인 「다산의 이상주거론」¹⁹⁾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민의 「다산의 이상주거론」은 18, 19세기 원림 문화와 다산이 원림과 전원생활에 대해 언급했던 다양한 문헌 읽기를 통해 다산이 생각한 이상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고찰을 했다. 여기에서 다산의 이상주거는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저술에 언급이 되었고 이런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자군들과 함께 다산초당으로 실천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문헌 읽기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원예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증거로 다산의 저술들을 인용하였고, 또 한편 그 변모하는 층위에서 다산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 공간, 즉 전원예는 어떤 층위를 가지고 있는 지를 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다산의 전원예에 관념적이지만은 않은 구체적인 현실성을 띠고 있음을 다산이 저술한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여, 18, 19세기의 문화 변동 안에서 다산의 주거론, 전원예에 갖는 층위를 통해 이해하고 있다.

4.2. 전원예에 형상화된 이상향

다산 한시를 분석한 논문들은 크게, 수학기, 사환기, 유배기, 해배 이후로 나뉘는 다산의 생애에 따라 그 시기 한시들을 모아 분석하거나²⁰⁾, 사회시, 농민

19) ———, 「다산의 이상주거론」, 『동아시아문화연구』 4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20) 이런 논문들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김봉남, 「茶山 丁若鏞의 解配 後 詩에 대한 研究 : 詩에 含蓄된 內面意識의 變貌樣相과 그 形象化」, 『동아인문학』 10집, 동아인문학회, 2006; 김봉남, 「茶山 修學期 詩에 나타난 내면의식의 제양상 - 수학기 전기(1765-1782) 시에 대하여」, 『어문논집』 53집, 민족어문학회, 2006; 김봉남, 「다산의 장기 유배기(流配期)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韓國漢文學研究』 38집, 한국한시학회, 2006; 윤재환, 「茶山 詩의 흥취와 서정의 객관화 - 강진 移配 이후의 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3집, 민족문학사학회, 2007; 한장훈, 「朝鮮 後期 漢詩에 나타난 事實性에 대한 一考察 - 「田間紀事」와 「己庚 紀事」를 대상으로」, 『국어문학』 44집, 국어문학회, 2008; 신두환, 「茶山의 유배 漢詩에 나타난 屈騷의 美의식」, 『漢文學論集』 28집, 단국한문학회, 2009; 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老年詩」, 『민족문학사연구』 44집, 민족문학사학회 2010; 김치완, 「금정찰방 좌천시기를 전후한 다산의 시문학 연구 - 自靖과 自獻의 의식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3권, 영주어문학회, 2012; 김윤규, 「장기(長基)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 57권, 동방한문학회, 2013 등.

시 등과 같이 다산 시를 내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한²¹⁾ 논문들이 다수이다. 이외에도 미발굴 시들을 소개하거나²²⁾, 다산에게 영향을 주었던 杜甫, 蘇東坡와 같은 당송시기 작가나, 袁宏道, 顧炎武와 같은 명·청시기 문인들과 비교를 하거나²³⁾, 시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논문들도 있다²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다산 한시관련 연구 중에서 전가시를 분석한 논문들이 다산의 전원관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는가를 살피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山水詩, 田園詩, 田家詩 등으로 불릴 수 있는 종류의 다산의 시들을 전가시 혹은 전원시라는 장르로 붙이고 있다. 이런 용어는 크게 자연시의 범주에 묶일 수 있으며, 명칭이 가지고 있는 차이도 시적 대상의 범주가 달라지

- 21) 이런 논문들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진재교, 「다산(茶山)의 우언시와 그 성격: 『해랑행(海狼行)』의 경우」, 『古典文學研究』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남재철, 「자연시(自然詩)의 의미(意味)와 한국(韓國)에서의 전개양상(展開樣相)」, 『東方漢文學』33집, 동방어문학회, 2007: 윤재환, 「茶山 社會詩의 性格 變化 檢討」, 『韓民族語文學』50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이철희, 「사회시(社會詩)에서 다산茶山과 치원(巨園)의 차이」, 『다산학』12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윤재환, 「시론(詩論)과 시세계(詩世界)의 상관관계(相關關係): 성호(星湖)와 다산(茶山)의 전가시(田家詩)를 중심(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송병렬, 「한국 한시의 특징과 展開: 우언시(寓言詩)의 특징(特徵)과 전개 양상」, 『東方漢文學』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김미선, 「유불(儒佛)의 다시(茶詩) 세계(世界)」, 『韓國思想과 文化』55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윤경수, 「茶山의 社會詩 연구 -敘事的 寫實性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6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김나혜, 「다산(茶山)의 우화시(寓話詩)연구 - 「오죽어행(烏鰂魚行)」, 「리노행(狸奴行)」, 「충식송(蟲食松)」, 「해랑행(海狼行)」 등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53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등.
- 22) 이런 논문들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윤재환, 「다산(茶山)의 미발굴 시 『효성제(效誠齋)』 48수(首) 분석(分析)」, 『韓國漢詩研究』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김상일, 「『六老山居咏』과 石屋淸峯·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比較」,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등.
- 23) 이런 논문들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김상홍, 「다산의 소동파론(蘇東坡論)」, 『南冥學研究』18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4: 심경호, 「조선후기 지식인과 고염무(顧炎武)」, 『漢文學報』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이영남, 「다산과 청대학자 전경익의 문학사상 비교」, 『한국언어문학』6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최중호, 「茶山 丁若鏞의 杜甫詩 收容樣相」, 『동아인문학』18집, 동아인문학회, 2010: 한매, 「한(韓) 중(中) 유학(儒學)의 전통(傳統)과 변화(變化): 한중 한시의 근대적 대응 양상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과 정암(定庵) 공자진(恭自珍)의 사회시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51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등.
- 24) 이런 논문들로는 아래와 같은 논문들이 있다. 전경원, 「다산(茶山) 정약용의 시경론(詩經論) 및 시의식(詩意識): 「관제(關雎)장(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30집, 2003: 전경원, 「다산 정약용의 사언시(四言詩)와 시경론(詩經論) 및 시인식(詩認識)의 상관성」, 『우리어문연구』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그레고리 엔 이반, 「정약용의 “조선시 선언” 고찰」, 『수행인문학』38집,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8: 윤인현, 「다산(茶山)의 유가(儒家) 문학관과 시문학(詩文學)」, 『한문학논집』36권, 근역한문학회, 2013 등.

는 것이라기보다,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이나 상황이 차이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²⁵⁾ 대상의 범주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상의 차이라면 전원시와 전가시가 또 다른 층위로 설명 될 수 있다. 전원시가 좀 더 관념화된 전원의 모습까지도 포함한다면 전가시는 거기서 좀 더 생활에 밀착하여 현실적인 생활상을 포함하는 것²⁶⁾으로 층위가 좀 더 세밀해 질 수 있다.²⁷⁾

앞서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했듯 전원과 전가의 범주는 차이가 있으며 전가는 전원의 구체화, 생활화의 양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용어들은 시적 대상의 범위는 동일하다. 산수자연을 읊고 거기서 경험하거나 느낀 화자의 정감을 표현하는 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의 동향을 보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따라서 2장에서 주지하였다시피 전가와 원림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삶과 이상적 공간을 넓게 포괄하면서도 원시나 자연물 자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전원의 개념이 전가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라고 여겨 전원시라는 명칭을 달았다. 그러나 연구사 검토이니 만큼 각 논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우선하여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전원시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주로 유배기 때의 시들을 분석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원생활의 실현이 비록 타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유배기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들은 다산의 유토피아적 형상화가 시에 어떻게 실현 되었는가를 보거나, 개별 시들 특히 연작체계를 중심으로 문예미학적 관점에서 시에서 드러난 표현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즉 이들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다산의 이상적 전원 공간이 어떻게 시에 표현되었는지에 집

25) 윤재환은 『田家詩의 形象技法考』(『연세어문학』 3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310면)에서 실제 문학작품이나 저술에서는 이런 명칭은 대상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의 방법이나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6) 남재철,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東方漢文學』33집, 동방어문학회, 2007, 108면.

27) 한편 현실 밀착적인 농촌생활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산 한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시와 농민시까지 전가시에 묶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생활상을 포착한다는 개념으로 전가시와 농민시를 한데 묶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산의 농민시, 또는 사회시에서의 현실은 화자의 주체적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보다 부조리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하는 리얼리티로서의 현실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산의 농민시나 사회시에 대한 연구는 연구사 검토 대상에서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농민시나 사회시 단독적으로 이루어져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하고 있다.

다산의 전원시에 대해서는 김상홍과 윤재환의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김상홍은 사회시나 농민시에 집중했던 80년대에 『茶山의 田園詩 研究』²⁸⁾를 시작으로 다산의 전가시를 언급하였다. 김상홍은 전원시의 대상을 전원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민의 참상을 토로하는 농민시(혹은 사회시)까지를 전원시로 보긴 하였지만, 다산의 전원시를 통해 歸田園에 대한 동경, 그리고 전원인으로서의 생활, 시에 표현된 전원미를 분석하여 다산에게 있어 전원은 직접 생활하는 삶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茶山 詩의 유토피아 世界』²⁹⁾에서는 기존의 한국과 중국에서 보이는 桃花園과 다산의 유토피아를 비교하고, 다산 시에서 볼 수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다산의 유토피아는 현실에 기반한 전원 속에서의 유토피아라고 보아 다산의 이상적 전원관이 현실에 기반한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윤재환은 『田家詩의 形象技法考』³⁰⁾에서 다산의 『夏日田園雜興』 24수를 대상으로 전가의 개념이 전원보다 현실 밀착된 개념으로 전가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주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로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유형의 다산의 시들을 전가시라 명명하였고, 다산의 전가시가 가진 특성이 생활에 밀접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적 형상화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그의 석사학위논문 『茶山의 田家詩 研究』³¹⁾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윤재환은 전원과 전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전가시의 관점에서 다산의 전가시를 분류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후로도 윤재환은 『田家詩의 形象技法考』³²⁾에서는 『輿猶堂全書』에는 없으나 그 전반부가 『夏日田園雜興』 24수와 흡사한 『效誠齋』 48수를 비교하여 自作農의 입장에서 전원생활에 동화된 생활밀착적인 심미적 태도를 가지고 회화적이고 사실적인 시적 형상의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고, 『다산(茶山) 시(詩)의 흥취와 서정의 객관화 -강진 이

28) 김상홍, 『茶山의 田園詩 研究』, 『한문학논집』11집,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4.

29) ———, 『茶山 詩의 유토피아 世界』, 『한문학논집』20집, 근역한문학회, 2002.

30) 윤재환, 『田家詩의 形象技法考』, 『연세어문학』 3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31) ———, 『茶山의 田家詩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32) ———, 『茶山의 미발굴 시 『效誠齋』 48首 分析』, 『한국한시연구』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배(移配) 이후의 시를 중심으로」³³⁾에서는 강진 유배 기간 동안 시기 순으로 시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산의 시세계와 다산의 의식 변화를 살피고, 심미적인 변이를 살폈으며, 「다산(茶山) 시(詩)의 흥취와 서정의 객관화 -강진 이배(移配) 이후의 시를 중심으로」³⁴⁾에서는 다산의 스승이자 近畿南人 계열의 宗主라고 할 수 있는 星湖 李瀼과 다산의 시론과 전가시를 중심으로 그 둘의 시세계의 구현을 비교 분석하여, 근기 남인 계열 학통 안에서 소박하면서도 생활에 밀착한 현실적인 다산과 성호의 시론이 어떤 지점에 맞닿아있는 지를 살폈다.

이외에도 남재철은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³⁵⁾에서 自然詩의 개념을 정립하여 거기에 전원시와 전가시의 의미적 차이를 파악하였고, 다산을 한국의 자연시의 전개 양상을 통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으로 선정하여, 다산의 자연시 중 주로 해배 이후 자연시를 중심으로 사실적 묘사를 통해 생활인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다산의 원림연작제영시인 「다산팔경사」와 「다산화사」를 원림관을 중심으로 분석한 줄고가 있다.³⁶⁾ 이 두 논문에서는 다산의 원림관을 務實지향적이라고 보고 이런 원림관이 「다산팔경사」와 「다산화사」의 작시 배경이 되었으며, 선대의 누정원림제영들과는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직접적으로 전원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은 아니지만, 새롭게 발굴된 다산의 산거시를 소개한 논문들이 있다. 정민의 「새로 찾은 다산의 「山居雜詠」 24수」³⁷⁾와 김상일의 「『六老山居咏』과 石屋清瑛·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비교」³⁸⁾이다. 정민의 논문은 「산거잡영」이 수록된 송광사 박물관에 소장된

33) ———, 「다산(茶山) 시(詩)의 흥취와 서정의 객관화 -강진 이배(移配) 이후의 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33집, 민족문학사학회, 2007.

34) ———, 「시론(詩論)과 시세계(詩世界)의 상관관계(相關關係) : 성호(星湖)와 다산(茶山)의 전가시(田家詩)를 중심(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35) 남재철,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東方漢文學』33집, 동방어문학회, 2007.

36)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茶山八景詞」 고찰」, 『남도문화연구』16집, 순천대학교, 2009 : 「다산 정약용의 원림관을 통해서 본 「다산화사(茶山花史)」, 『국학연구론총』13집, 태민국학연구원, 2014.

37) 정민, 새로 찾은 다산의 「산거잡영(山居雜詠)」 24수, 『문헌과 해석』 42호, 문헌과 해석사, 2008.

38) 김상일, 「『六老山居咏』과 石屋清瑛·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비교」, 『한국문학연구』3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승려 寶鼎의 『柏悅錄』과 이와 동일한 내용인 『六老山居咏』을 소개하고, 2006년에 2회 다산 정약용선생 유물특별전에 전시된 다산의 편지 「葫菴回納」를 통해 「산거잡영」의 제작 시기를 밝히고 『육로산거영』에 있는 「石屋禪師律詩奉和序」를 통해 제작 연유를 밝혔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24수를 번역하여 소개하면서, 해배 바로 직전에 다산초당의 생활을 집약하여 보여준 시라고 평가하였다.

김상일의 논문은 「산거잡영」 24수가 실려 있는 필사본 『육로산거영』을 불교문학의 한 장르인 산거시의 관점에서 문헌학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원운시인 石屋 「산거잡영」과 다산의 「산거잡영」을 비교하였다. 정민의 논문이 새롭게 발굴된 「산거잡영」을 번역, 소개하는데 집중했다면 김상일은 불교 문학 장르 중 하나인 산거시의 관점에서 원운시와의 비교를 통해 구도와 유배, 禪理의 達觀으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위의 두 논문은 하나의 작품을 전원시의 관점과 산거시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특히 그 작품이 다산의 逸詩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하다. 다산의 「산거잡영」은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른 다산의 전가시에 비해 달관이나 무위의 정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작시의 시작이 산거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상일의 분석처럼 다산은 자기 의지로 산거를 시작한 것이 아니며, 그 뿌리가 실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의 누정제영이나, 원림제영과 마찬가지로 분명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 이는 그의 전원의식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면밀한 분석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역시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읊는 시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전원과 산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히 원림과 누정을 읊는 경우 빼놓을 수 없는 시의 장르인 영물시의 입장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과 사물에 대한 다산의 인식을 알고자 하는 논문들이 있다. 화훼시에 대한 논문들인데, 다산의 화훼시를 보고자 하는 논문들은 많지는 않지만 18, 19세기에 불었던 사물에 대한 관념적 관찰에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관찰로 변화되는 풍조와 함께 그 사이 중농학과 실학자로서 다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논문들이 있다.

다산의 사물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이 드러난 화훼시와 이를 花卉畵와 연결하여 본 고연희의 「정약용의 화훼에 대한 관심과 화훼시 고찰」³⁹⁾과 고려시대

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한국 층어초목화훼시의 전개를 살펴 사물에 대한 각 시대의 학자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본 안대회의 「한국 층어초목화훼시의 전개와 특징」⁴⁰⁾, 그리고 다산의 화훼시 중에서도 袁宏道の 영향을 받은 菊影놀이를 그가 결성했던 竹欄詩社의 일원들과 함께 했던 일화가 담긴 菊影詩를 대상으로 하여, 다산의 「菊影詩序」와 카메라 옵스큐 원리를 규명한 글인 「漆室觀畫說」 등의 저술을 통해 분석하고 그 영향이 다산학단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본 신익철의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⁴¹⁾ 등이 있다.

위의 논문들은 전원시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자연물이 혼재하는 전원생활을 노래하는 전원시에서 영물시, 그 중에서도 초목과 화훼를 노래한 화훼시는 전원을 묘사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18, 19세기는 청의 고증학에 대한 영향, 청나라를 통한 서학의 유입과 다양한 서적의 수입, 그리고 국내 상업 활동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많은 당대의 학자들에 대한 인물관, 자연관, 사물관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의 논문들은 이 시기 사물관과 자연관에 초점을 맞춰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화훼시에 집중하여 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학자들의 사물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도학자의 觀物을 넘어섰다. 이런 사물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관심은 관념적 관찰이 아닌 실제적 관찰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이런 특징은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사물들을 사전식으로 저술한 물명서와 기존의 영물시와는 또 다른 문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영물시 등으로 증명된다. 다산 또한 이런 흐름에 벗어나지 않고 『竹欄物名攷』 등과 같은 물명서를 편찬했고, 그의 다양한 저작과 시 작품을 통해서도 사물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시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초목과 화훼를 표현한 다산의 시각은 앞서 거칠게 살펴보았던 당대 사물에 대한 시각의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흐름에

39) 고연희, 「정약용의 화훼에 대한 관심과 화훼시 고찰」, 『동방학』7집, 한서대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1.

40) 안대회, 「한국 蟲魚草木花卉詩의 전개와 특징」, 『한국문학연구』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41) 신익철,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16집, 한국실학학회, 2008.

서도 현실을 바라보는 다산만의 독특한 사물관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산의 사물관은 다산이 처한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으며, 그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원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전원관과도 분명히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 살핀 다산의 전원시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대체로 다산의 전원은 현실에 밀착된 화자의 주체적 삶이 구현된 공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당대, 혹은 선대의 작품과 어떤 충위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런 다산의 전원에 대한 인식은 실천적, 현실적 공간이라고 본 조경학적 접근과 문헌적 접근과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여기까지 다산에 대한 수많은 연구 업적들 중 일부를 전원관을 키워드로 거칠게나마 정리하였다. 다산은 다방면에 천재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학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 원림 조영과 조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에 불었던 화훼와 원예 그리고 정원조영에 대한 열풍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그 안에 다산만의 독특한 전원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후기 원림 조영과 화훼벽은 당대 사대부들의 사물관과 전원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다산의 전원관은 그 변화하는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후기 변이양상에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다산의 전원관을 통해 다산이 자연과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가 바라는 이상적인 전원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다산의 전원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산의 전원관이나 원림관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원림의 구성과 공간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조경학적 접근과 다산의 다양한 저술을 통해 다산의 이상적 전원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에 집중한 문학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연구 동향

을 살폈다.

각 장에서 살핀 다산의 전원관을 보자면 각 연구 방법상의 차이가 있으나, 현실에 기반한 실천적 공간으로 다산의 전원을 보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조경학적 접근에서는 실제 구현공간인 원림(주로 다산초당 원)을 중심으로 다산의 실천적 전원관이 공간구성에 드러난다고 보았고, 문학적 접근 중 문헌읽기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상적 주거공간, 또는 전원 공간에 대한 다산의 언급에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전원 공간을 꿈꾸었다고 보았다. 또 전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에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전원을 분석한 접근에서는 주로 작품에서 구현된 이상적 전원 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다산의 전원은 현실에 밀착된 화자의 주체적 삶이 구현된 공간이라고 보았다. 연구 방법상 및 연구자들 간의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얼마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다산의 전원관이라는 키워드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다산의 전원관은 현실에 밀착된 주체적인 삶의 공간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산의 전원관을 살피려면 우선 다산이 남긴 저술과 조영한 원림을 먼저 대상으로 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경향성을 띠고 다산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 또한 다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런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다산의 저술과 원림을 대상으로 좀 더 면밀한 전원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연희, 「정약용의 화훼에 대한 관심과 화훼시 고찰」, 『동방학』7집, 한서대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1, 39~57면.
- 김상일, 「『六老山居咏』과 石屋清珙·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비교」, 『한국문학연구』 3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287~319면.
- 김상홍, 「茶山의 田園詩 研究」, 『한문학논집』 11집,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4, 99~125면.
- , 「茶山 詩의 유토피아 世界」, 『한문학논집』20집, 근역한문학회, 2002, 75~118면.
- 남재철, 「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 『東方漢文學』33집, 동방어문학회, 2007, 103~137면.
- 박희성,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희성·조정송,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25권, 한국조경학회, 1997, 131~142면.
- 신익철,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16집, 한국실학학회, 2008, 129~159면.
- 심경호, 「화원에서 얻은 단상」,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2, 89~132면.
- 안대회, 「한국 蟲魚草木花卉詩의 전개와 특징」, 『한국문학연구』 2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147~173면.
- , 「18, 19세기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97호, 진단학회, 2004, 111~138면.
- 양병이·박은영·박위,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길도원림, 소쇄원, 남간정사,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권, 한국전통조경학회, 2003, 9~20면.
- 원종례, 「陶淵明과 王·孟의 田園詩 연구」, 『논문집』1,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995, 7~38면.

- 윤재환, 『茶山의 田家詩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 『田家詩의 形象技法考』, 『연세어문학』3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309~332면.
- , 『茶山의 미발굴 시 『效誠齋』 48首 分析』, 『한국한시연구』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367~397면.
- , 『다산(茶山) 시(詩)의 흥취와 서정의 객관화 -강진 이배(移配) 이후의 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33집, 민족문학사학회, 2007, 160~187면.
- , 『시론(詩論)과 시세계(詩世界)의 상관관계(相關關係) : 성호(星湖)와 다산(茶山)의 전가시(田家詩)를 중심(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179~214면.
- 정동오, 『강진지방에 있어서의 조선시대의 원림』, 『호남문화연구』 12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2, 193~216면.
- , 『정약용의 원림생활연구 -丁茶山全書を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집, 한국전통조경학회, 1986, 123~136면.
- , 『한국 전통정원의 공간구성과 다산 정약용 -다산초당과 『朝夕樓記』를 중심으로』, 『다산과 현대』 4권, 연세대학교 강진실학연구원, 2012, 363~376면.
- 정 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癖과 癡추구의 경향』, 『18세기연구』 5호, 한국18세기학회, 2001, 5~29면.
- ,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 연구』 4호, 한국18세기학회, 2002, 95~125면.
- ,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완물 취미와 지적 경향』, 『고전문학연구』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327~354면.
- ,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35집, 한국한문학회, 2005, 35~77면.
- , 『다산초당 경영과 공간 구성』, 『문헌과 해석』 39호, 문헌과해석사, 2007, 13~32면.
- , 『새로 찾은 다산의 『산거잡영(山居雜詠)』 24수』, 『문헌과 해석』 42호, 문헌과해석사, 2008, 11~28면.

- , 『다산의 평생구학론 - 이성화에게 준 3종 친필첩을 중심으로』, 『다산학』14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9, 81~110면.
- , 『다산의 이상주거론』, 『동아시아문화연구』 4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125~120면.
- 정찬민, 『다산의 원림관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유리, 『자연관이 별서건축 공간에 미치는 영향 : 소쇄원, 다산초당, 보길도원림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최인애, 『다산 정약용의 자연관이 원림 조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현영조, 『朝鮮時代 代表的 知識人의 茶文化空間 研究 - 고산, 다산, 초의를 사례로』, 『한국차학회지』 7권, 한국차학회, 2001, 1~13면.
-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茶山八景詞』 고찰』, 『남도문화연구』16집, 순천대학교, 2009, 255~279면.
- , 『다산 정약용의 원림관을 통해서 본 『다산화사(茶山花史)』』, 『국학연구론총』 13집, 태민국학연구원, 2014, 266~298면.

【국문초록】

다산은 다방면에 천재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학자 중 하나로 원림 조영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시대 선비 문화에서 원림 조영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이런 공간의 조영과 향유 활동은 전원을 세속과 반대되는 은자로서의 삶의 공간인 자연, 즉 전원인 이상적 공간으로 읽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에는 서울 중심의 도시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상적 전원의 공간이 교외가 아닌 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따라서 다산의 원림 조영과 이에 투영된 전원관은 선대의 전원관과는 분명 다른 지점이 있다. 한편 다산의 전원생활은 유배라는 타의에 의한 교외의 전원생활이었다. 이는 다산의 전원관이 당대의 전원관과도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이다. 이런 다산의 전원관을 알기 위해서는 다산의 다양한 저술과 전원관의 실현인 다산의 원림을 조사하여 분석해야 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다산에 대한 연구는 다산의 저술만큼이나 수많은 연구자들의 업적이 집적되어 있다. 다산에 대한 연구자들의 업적을 다양한 키워드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여 검토해 보는 일 또한 다산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도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산의 전원관이라는 키워드로 다산의 선행연구들을 분류해 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다산의 전원관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조경학적인 접근과 문학적 접근 두 갈래로 주로 연구되었으며, 문학적 접근의 경우 문헌읽기와 전원시 분석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경학적인 접근은 주로 전원관의 실현인 원림의 구성과 조영 방식을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문학적 접근에 있어 문헌읽기는 원림과 전원에 대한 다산의 저술을 통해 다산이 언급한 이상적 전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원시 분석은 전원시에 표현된 이상향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방대한 다산의 선행연구들을 전원관이라는 키워드로 거칠게 살펴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지만, 키워드를 통한 선행연구의 분류와 검토를 통해 다산의 전원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산을 이해하는데도 또한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전원관, 전원, 원림

【Abstracts】

Trends of the Study in Dasan Jeong Yak-yong's View of the Rural Area

Hwang Min-sun

Dasan, who showed aspects of a genius over various fields, is one of the Silhak scholars who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late Joseon, and had broad knowledge about the Garden Construction. The Garden Construction was highly universal inclassical scholar's culture in the Joseon Age. The Garden Construction and the activity of joying it can be read as nature, a space of life for hermits against the mundane world, that is to say, an ideal space of Garden. Also, the late Joseon in which Dasan lived was a period in which ideal space of Garden converged on cities rather than on suburban areas as urban culture developed around Seoul. Thus, Dasan's Garden Construction, and his pastoral view projected to it obviously had something different from earlier pastoral views. On the other hand, Dasan's pastoral life was suburban life forced by others. This is the point where Dasan's pastoral view is different from other pastoral views in his times. In order to understand Dasan's pastoral view as it were, we should first investigate and analyze his Classical Garden, the crystallization of his diverse books and pastoral view. However, the study of Dasan was as huge accumulation of numerous researchers' contributions as his

writings. I think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classify the contributions of the researchers in Dasan with various keywords and organize and examine a history of Dasan study.

Thus, this paper classifies previous studies on Dasan in terms of the keyword, Dasan's pastoral view. Based on this, it finds out that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tried to explicate his pastoral view fall within two approaches in general including the approach of landscape construction, the literary approach. The approach of landscape construction tends to analyze the composition and constructive styles of Garden, the crystallization of his pastoral view, and the literature-based approach shows the tendency to analyze what is the ideal garden that Dasan mentioned in his writings about Garden and nature. Lastly, the literary approach tries to analyze how the utopia expressed in his pastoral poetry is literally realized. Though it has some limitations as it roughly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Dasan in terms of the keyword, Dasan's pastoral view, this paper can be said to be helpful in grasping the stream of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of them, and in understanding Dasan himself.

Key words: Dasan Jeong Yak-yong, View of the Rural Area, Rural Area, grove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